

# ‘감사위 7인-의결정족 ⅓’ 완화, 코스닥사 ‘숨통’

〈선임위원회〉

강화된 내부회계 관리규정  
코스닥 기업 부담으로 작용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  
기준 ‘검토’에서 ‘감사’로 변경

7명의 위원을 구성해야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엄격한 의결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신(新) 외감법으로 강화된 내부회  
계 관리규정이 코스닥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업  
의 성장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스닥 내  
부감사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외감법이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행령, 규정, 세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스닥 내부감사 포럼’에서 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최 등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  
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7명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감  
사인선임위원회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  
기 때문에 관련 검토에는 2~3개월이 걸  
릴 예정이다.

김 팀장은 “금융기관인 채권자의 경  
우임원을 위원으로 선임해야하나 이들  
은 비협조적이고, 소액주주나 외국계  
투자자 등은 연락 조차 힘든 경우가 많  
아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곤란하다”고 지  
적했다.

이어 그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하는 것 역시 코스닥 기업에  
겐 부담”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중  
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  
사 면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  
도 도입시기 연기 등 내부회계관리제  
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신외감법은 주기  
적 감사인 지정제를 비롯해 표준감사사  
간제 등 기업 회계 감사의 투명성, 전문  
성을 높인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  
어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각  
종 강제 규정을 넣었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갖춰야 하  
고, 감사인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 의견을 작성해  
야 한다. 기존 ‘검토’ 수준에서 높아진

것이다. 또 내부회계관리 결과 보고를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서  
하던 방식에서 회사의 대표가  
주주총회를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바  
뀌었다.

김 팀장은 “외감법은 회계 투명성, 신  
뢰성 강화라는 대의명분으로 일정 필요  
성이 있음은 분명하다”면서 “지금까지  
외감법은 감사인,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이뤄졌다면 법이 시작됐으니 시행하면  
서 법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주시하  
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회계관리 강화가 기업의 회  
계 투명성을 위한 숙원사업임은 분명히  
했다.

김유경 삼정KPMG 전무는 “내부회  
계관리제도는 기업이 돈을 벌고 성장하  
는데 동떨어진 업무가 아니다”면서 “기  
업의 재무정보가 자산의 왜곡없이 공시  
되는 것을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를 강  
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j301@metroseoul.co.kr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 왼쪽)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중소기업디지털경제부 장관(맨 오른쪽)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

## 박영선-펠르랭 전 장관, 스타트업 투자 논의

〈중기부장관〉 〈프랑스〉

한국-프랑스 스타트업 교류 확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서  
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플뢰르 펠  
르랭(Fleur Pellerin) 전 프랑스 중소기  
업디지털경제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프  
랑스 스타트업 공동 투자에 대해 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스  
타트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스타트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계획 등에 대한 대  
화가 진행됐다.

플뢰르 펠르랭 전 장관은 지난 2012  
년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프랑스공공투자은행인 B  
PI 프랑스를 만들었다. 아울러 벤처 육  
성을 위한 법과 제도 등 벤처 생태계 육  
성에 일조했다.

플뢰르 펠르랭 전 장관은 자신이 운  
영하는 벤처캐피탈 코렐리아(Korely  
a)캐피털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가 참  
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플뢰르 펠르랭 전 장관은 “1호 펀드  
는 아시아에 관심 있는 유럽 스타트업  
에 투자했지만 2호 펀드부터는 차츰 한  
국에도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럽  
이 여러 나라와 문화로 구성돼 복잡한  
시장이지만 우리가 가진 네트워킹으로  
한국 스타트업에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한국과 프랑스스타트업 교류로  
미국과 중국에게서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플뢰르  
펠르랭 전 장관은 “유럽과 한국 사이에  
혁신 교류도 점점 많이 생기면 언젠가는  
미국 또는 중국의 IT 자이언트인 페이  
북, 텐센트 등 대기업과 경쟁할만한 챔  
피언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박영선 장관은 “아시아와 유럽의 스타  
트업이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교역할을 하면 좋겠다”며 “우  
리가 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에 맞게 참  
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장관은 “오는 11월 29일 ‘OEC  
D Digital For SME’가 처음으로 프랑스  
에서 열리는데, 이번 주요논제가 ‘중소기  
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이고 한국과 뉴질  
랜드가 이 회의를 공동 주제로 달라는 요청  
을 받았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프랑  
스를 방문하게 되면 보다 많은 한·프랑스  
스타트업 교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11월 말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한·아세안  
의 스타트업 연대’가 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라며 “이를 앞두고 한국과 프랑  
스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 진다면 한국  
과 프랑스가 유럽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공공SW 최저가 입찰논란… 다시 수면위로

### 중소SW “삼성SDS 산업 상생 저해” 삼성SDS “경험·경쟁력 바탕 입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쏟아  
지면서 SW 및 IT서비스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중소SW 업계  
가 삼성SDS의 저가입찰 행보가 산업  
전반의 상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삼성SDS가 최저가 경쟁을 부추겨 S  
W 업체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IT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668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 사업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설  
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모는 196억원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추진하는 본사업  
수주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1단계 사  
업 수주 기업이 사실상 향후 2년 동안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중소SW 업계와 대기업 사이 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삼성SDS가 입찰가  
격의 하한선인 80.7%를 적어내 낙찰을  
받은 것. 삼성SDS가 입찰가격의 80%

대를 적어낸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SW  
업계는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높이기 위  
해 수년간 힘써온 IT서비스업체들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는 지적이다.

실제로 IT서비스업체들은 현재 입찰  
가격의 하한선인 80%를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서  
명시한 수준과 동일한 95%로 상향시키  
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ITSA)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SW사업의 낙찰률  
(예산대비 최종 수주금액 비율)은  
9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 대기업 참여전면화  
제도를 시행했던 초반 중견기업들이  
최저가 경쟁을 하면서 이익율이 0%대  
로 머물렀던 경험 이후 저가입찰을 지  
양하려는 업계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SDS는 지난 행안부 차  
세대 사업에서 80.7%를 제출해 가격 평  
가에서 만점을 받은 반면, 경쟁사는 91.0%  
를 제출해 8.9점을 받았다. 공공  
SW 입찰 시 1점 차가 당락을 좌우하는  
데 양사 간 기술점수 차이는 0.1점 차로  
사실상 가격이 최종 수주 여부를 가른  
셈이다.

SW업계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고  
한 약 12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예산회  
계시스템 구축사업’에서도 삼성SDS가  
입찰가격의 하한선인 80% 최저가로 입  
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쟁이 필연적인 시장에서 가  
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기업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기재부 사업을 포함해 보건복  
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000억원), 우체국 금융차세대  
(2000억원) 등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총 1조원대 대  
형 차세대 IT사업이 최근 발주되거나  
발주될 예정이어서 관련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삼성SDS가  
2013년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  
데,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꼭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80% 대의 최저  
가격을 써낸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방  
세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에서 삼성SD  
S는 우선 기술 평가에서 우위였고, 가  
격 평가에서는 삼성SDS의 프라이빗 클  
라우드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시  
한 가격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결과”라며  
“기재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은 사업  
참여 여부 자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  
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금융위,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2%대 대출상품 제공

### 5년 동안 1억 한도 대출 가능

오는 14일부터 영세한 온라인 사업자  
를 위해 2%대 보증부대출 상품이 나온  
다. 사업운영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신  
용등급이 8등급 이내라면 5년 동안 1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영세한 온  
라인 사업자에게 15일 기량 소요되는

카드매출대금 회수기간이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어, 자금을 공급해 유동성 문제  
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한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많은 온라

인 사업자들이 전자결제대행업체(PG  
사)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카드  
매출대금 회수기간이 길어 유동성 문제  
제를 겪고 있다”며 “보증부대출상품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